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말 달구다

한국전각협회 회장 황보근 작가 초청 토론·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 등 행사 열려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주말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행사가 이어졌다. 먼저 전북예술회관에서 한국전각협회 회장인 황보근 작가를 초청해 전각의 철학과 전각학습과정 및 창작에 관한 신념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작가는 전각은 동양예술의 삼예중에서 으뜸이라며, 거대한 서화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공예적이고 조각적이라 할지라도 손 끝에 잔재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을 표상하는 철학적 역사적 미학적 배경을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서예비엔날레에서 처음 기획한 전북서예유산의 길을 따라 탐방 행사가 열렸다. 서예로 보는 전북문화유산을 집필하고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종근씨의 해설로 진행된 이 행사는 전주에 산재되어 있는 편액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작가의 구수한 입담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시민은 행사의 참신성과 의미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작가와의 만남과 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



서예비엔날레에서 처음 기획한 전북서예유산의 길을 따라 탐방 행사가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리에 참가 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작가와의 만남), 전주 객사 앞(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으로 나가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34개 행사에 3000여 작가가 참가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등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12월 5일까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원회(063-241-4507~8)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드라마 '지리산' 활용 관광활성화 협력

전북문화관광재단-남원시-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체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15일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 간 드라마 '지리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tvN 드라마 '지리산'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끈다는 목적으로 추진, 드라마 기획전시관이 있는 국립공원 지리산 뱀사골본소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드라마 '지리산' 촬영지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콘텐츠 활용 홍보마케팅,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드라마 '지리산'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2023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구성 등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오늘 드라마 기획전시관도 개관하고, 세 기관의 업무협약까지 이뤄져 드라마 '지리산' 관광마케팅활성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드라마 '지리산'과 남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돼 k-콘텐츠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제6회 진안예찬 학생백일장대회 시상식' 37명 수상

사)진안예찬 진안자부(회장 유종구)는 지난 12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제6회 '진안예찬 학생백일장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진안예찬 학생백일장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지난 9월~10월 진안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안에 관한 이야기(자연, 문화유산, 진안에 대한 생각)를 주제로 작품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공모하여 11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유종구 회장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진안예찬 학생백일장대회에 관여 학생들의 많은 참여 감사하여, 우리 고장에 관한 훌륭한 시와, 수필이 작년보다 더 많은 작품이 응모 되었다"고 밝혔다.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진안예찬 학생백일장대회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재능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대회를 통해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유



산에 대한 멋진 작품이 많이 출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시상식에서 등량중 박민 학생의 <우리집 밭짓은 꽃밭 플러스> 작품이 대상을 차지하였고, 진안중 최강 <진안에 대한 내 생각 5가지>, 중앙초 박승희 <멋진 미안산>의 작품이 금상을 받았으며, 은상 2명, 동상 5명, 장려상, 입선자 포함 37명이 학생들이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경영능력 상실한 대표이사는 책임져라"

전북문화관광재단 노조, 잘못된 사업 운영 본부장 엄중한 처벌 요구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원칙 없는 경영을 일삼는 대표이사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 대표이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측근 감싸기에 급급해 오히려 노동자들을 편 가르기와 쫄 세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대표이사는 A 본부장의 잘못된 사업 운영과 태도를 바로 잡고, 방만한 운영을

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A 본부장은 입사하기 전부터 부카페를 운영했으며, 현재도 사업장의 대표자는 A 본부장의 이름으로 돼있다"며 "재단은 규정에서 분명하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복무 규정 제11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당 임원은 재단의 규정과 공공기관 임원이라는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영리사

업을 지속하고 있다. 최고 파면의 징계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잘못도 대표이사의 측근이라면 묵인하는 것이 재단의 현주소를 규탄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부조리한 행태와 관련해 내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전북도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부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제주 교류展 중견작가 참여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1 국내교류지원사업:전주×제주 교류展'에 참여할 중견작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류전은 우리 지역 작가의 타지역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활동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주 중견작가 집중 재조명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중견작가와 제주의 기획자가 만나고, 전주의 예술가와 제

주의 예술가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로 교감하고 연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공모주제는 이번 교류전의 주제이기도 한 '교감과 연대: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적 사유와 모색'이며, 환경, 생태, 일상 회복, 성찰, 공감 등 키워드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의 성찰과 탐색으로 발견해 낸 예술세계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 연고의 개인전 5회 이상 전시 이력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견작가로, 이 공모는 미발표 작품을 우선으로 해 최종 5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 임대료 150만 원과 함께 교류 전시 지원 및 전시 도록 제작, 전시 홍보 등을 지원하며 제주 문화예술계와의 교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순창군민사회교육 수강생 작품전시회 옥천골미술관서 개최

순창 옥천골미술관에 순창군민사회교육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닦은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전시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제2회 군민사회교육 전시회는 20일 동안 1부와 2부로 나눠 이뤄진다. 1부는 16일, 2부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며, 1부 전시에서는 광목자수, 도자기 공예, 생활양재, 캘리그라피 수강생들의 작품 90여점이 전시된다. 2부에서는 미술이카데미, 사군자, 서예 수강생들의 작품 6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사회교육은 매년 반기별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 8개 과정으로 30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행복누리센터, 옥천골미술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